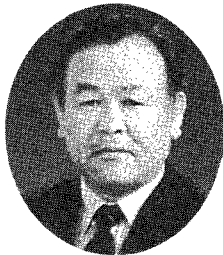


축산업계

소식

충남대학교 한성욱 교수 학장 취임



△한성욱 교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에 축산학과 한성욱 교수가 5월1일부로 취임하였다.

현재 가금학회장, 재래닭보존연구회장을 역임하고 본회 닭 경제능력 감정위원으로 활약중에 있는 한 학장은 양계산업 발전을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가금학회 '94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 축협, (사)대한양계협회가 주최하고, (주)미원마니커, 영육농산, 하림, 한일농원, 대연식품이 후원한 '94년도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이 "국제수준의 육계생산 전략"이란 주제아래 지난 4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충남 계룡산에 위치한 동학산장에서 각 업계인사, 생산자 등 약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 제1부에서는 가금학회 박영인 부회장이 "육계산업의 리엔지니어링"과 건국대 김정주 교수가 "육계산업의 일관생산체계"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제주시험장 정선부장장이 "능력검정 성적을 기초로한 육계의 개량실적과 금후 전망"과 축산시험장 이덕수 연구관이 "육계의 사육시설 및 환경", 가축위생연구소 김기석 계역과장이 "최근 국내육계 질병의 발생동향과 방제대책", 건국대 고태송 교수가 "육계영양과 계육의 품질향상"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한국가금학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개정(안)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전 한국가금학회 회장인 박근식 현 가위연 소장에게 그간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감사패 전달식도 겸하여 실시하였다.

제 3 부에서는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최한 사무관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본회 이규성 전무는 기지원된 계열주체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전북 익산군 망성면에 위치한 (주)하림을 방문 부회장 및 도계장과 전북양계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계분비료공장을 견학하는 순으로 “'94년도 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 행사를 가졌다.

(가)충북양계협동조합 임시총회 질병세미나 겸해 개최



(가)충북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문달) 임시총회가 지난 26일 오전11시 충주시 행운예식장 회의실에서 조합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임시총회는 질병발생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질병과 관련된 세미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94년도 사업계획 및 정관을 검토키 위해 자료로 배부하였으며 조합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은 실사가 마무리되는 5월말경이면 정식인가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충북양계조합은 충북지역이 계열화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볼 때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어 양계인들이 국제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괄생산체제를 갖추어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조합 선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한국농자재산업협회로 재출범

농자재의 질적향상과 농민들에게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립된 한국농자재산업협회가 지난 3월28일부로 사단법인 한국농자재산업협회로 재출범 했다.

(사)한성협동회, 부산·경남양돈조합 사료제조업 허가받아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8일과 4월9일부로 전북 전주시 소재의 (사)한성협동회와 부산·경남양돈조합에 대해 사료관리법 제9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5항 의거 배합사료제조업을 허가키로 했다. 한성협동회는 회원가가 이외는 판매 할 수 없으며, 양돈조합은 양축용중양돈용 배합사료에 한하여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농어민신문

“창사4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장 황민영)이 주최한 “창사4주년”기념행사가 지난 7일 서울 힐튼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각 정책담당자, 관련기관단체, 학계, 각 업계 인사 전국농어민주주대표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 제1부에서는 참가자 등록, 유통정보위원 위촉장 수여, 저명인사 초청강연에 이어 제2부 행사는 창사4주년 기념식 및 UR극복을 위한 정부·생산자·소비자의 역할 분담 천명과 자축연 순으로 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 4천만 소비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8만 농어민후계자 대표 결의문” 등 3개항목에 대한 건의·호소·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농업개혁과 인력육성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최준구 회장이 참석하였다.

산업피해구제 상담실 설치·운영키로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5일부로 UR협상 타결이후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이용이 계속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 상담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상담실은 과천정부제2청사

4동1층118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전화 504-5617로 하면 된다.

'94년도 수입제한 유제품 및 종축 등의 수입추천 한도량 확정 발표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17일부로 '94년도 수입제한 유제품 및 종축 등의 수입추천 한도량(축영 51532-70)을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했다.

— 다 음 —

'94 유제품 및 종축등의 수입추천 한도량

구 분	'93실적		'94계획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톤	천불	톤	천불
○유장분말 (조제분유제조용)	5,500	6,475	9,500	11,400
○탈지분유 (공업용)	503	618	420	672
○분 유 (수급조절용)	11,000	18,945	11,000	22,000
○총 톤	1,060두	2,649	1,500두	4,050
○총 우	18	1,521	40	6,250

주) 1. 총계, 종란, 소정액, 돼지정액, 수정란은 한도량없이 추천(능력 제한)

2. '94분유(수급조절용) 중에는 치즈(2,500톤) 포함

UR 국회비준 거부촉구 결의문 채택

전라북도의회는 지난8일부로 “UR 국회비준 거부촉구 결의문(의사 제218호)”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다 음 —

UR 국회비준거부 촉구 결의문

정부가 3월11일 가트에 제출한 최종 개방

이행계획서(C/S)는 미국과의 검정과정에서 이면협약서(사이드레터)교환 등 밀실험상에 의하여 또 다시 수입개방을 확대하였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UR 밀실험상에 의한 수입개방확대를 규탄하면서, 지난 3월25일 확정제출한 최종 개방이행계획서 작성과 협상과정에서 6백만 농민과 민족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개방의 폭을 축소하고, 국내농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노력조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대주의와 협상 무능력으로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장된 권익조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에 추가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번 C/S의 수정은 미국과의 밀실험약에 의한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표출한 결과로 형식적으로는 다자간 검증회의 따른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의한 결과이며, 수정된 대부분의 내용이 한·미간 쌍무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굴복으로써 그 동안 6백만 농민과 전국민의 한결같은 재협상 요구에 대해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UR협상문은 하나도 수정할 수 없다고 한 정부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청천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이에 우리 전라북도 의회는 한국농업의 본산지임을 사처하며,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6백만 농민의 사활을 직시하고 UR국회 비준거부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2. UR협상 과정의 정당성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즉시 개최하라

3. '93년 12월15일 타결된 협약서 내용보

다 나왔다는 정부의 허구적인 선전을 즉시 중단하라.

4. 미국과의 밀실 이면협상(사이드레터)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

5. 정부는 남북간의 무역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 받도록 하고, 국내농업에 대한 보조지치를 확대하도록 하라.

6. 정부는 향후 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을 대비해 국내 농업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정책의 전면적 전환과 UR재협상시 10년 아니 20년후 수입물량 및 가격을 보장 받아야 한다.

1994년 4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전국농어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부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다 음 —

한총련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정부의 UR 밀실험약을 규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국회 비준거부와 UR재협상 쟁취를 위한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의 구국단식에 대해 동정과 비통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학도들이 망국적 농산물 수입개방에 목숨을 건 단식행위에 대해 농민지도자와 농민단체 일동은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사대주의 통상외교와 UR협상에서의 국민기만행위를 반성하고 굳이 우선의 재협상을 위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재협상 의지천명

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젊은 학생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방관해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밝힌다.

-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여 UR재협상을 추진하라.

- 대통령은 UR재협상 의지를 표명하라.

- 가트 체제 탈퇴 않고 수입개방 막을 수 있다. 정부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

1994. 4. 13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농림수산부 인사이동

농림수산부는 지난 20일자로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과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을 다음과 같이 단행하였다.

- 다 음 -

• **이사관 승진** : 이영래 (농림수산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파견)

• **부이사관 승진** : 안중운 (공보관), 이현목 (농업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

• **서기관** : 권용우 (통상협력1담당관), 하영효 (행정관리담당관), 안덕현 (농어촌복지담당관), 유병린 (정주권개발과장), 김종진 (국제

협력담당관실), 류홍열 (농업구조정책과), 백상준 (개발기획과), 조춘상 (양정과), 심재천 (농산과), 김상범 (채소과), 김재진 (조성과장), 김남길 (초지사료과장), 김준식 (국립종축원 남원지원장)

• **과장전보** : 최수일 (장관비서관), 김선오 (개발기획과장), 이준영 (시장과장), 손정수 (축정과장), 박해상 (농산과장), 강상헌 (채소과장), 안병규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과장), 박병원 (국립식물검역소 조사연구과장), 임영순 (수리과장), 김 현 (국립종축원 대가축과장), 김길수 (국립종축원 중소가축과장), 지병천 (국립종축원 사료생산과장)

국세청

'93년도 표준소득을 산란계 5.8%, 부화업 8.8% 확정발표

국세청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93년도 표준소득율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산란계의 경우 6.2%에서 5.8%로, 육계는 6.8%에서 6.1%로 낮아져 지난해에 비해 각각 0.4%, 0.7%가 인하 되었으며, 부화업은 허가인 경우 11.0포인트 %에서 8.8%로, 무허가는 18.0포인트 %에서 14.4%로 낮아져 각각 2.2%, 3.6%가 인하 되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